

# 대중음악과 현대미술의 만남 31개 방마다 색다른 공감·치유

문화전당 '클럽 몬스터'전 관람기

밥 딜런·노찾사 노래 등 108곡

전세계 작가 24명이 작품 만들어

복합창조원서 27일까지 무료 관람



신미경 작 'Blowing in the Wind'



대중음악과 현대미술이 만난 '클럽 몬스터'전이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문화창조원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쿵쿵거리는 음악이 가슴을 뛰게한다. 철제 구조물을 이용해 만든 3층 규모의 전시장엔 31개의 방이 있다. 각각의 방에선 다양한 음악이 흘러 나온다. 룸에서 만나는 건 그 음악들을 모티브로 한 영상·설치·회화 작품들이다.

오는 2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2관에서 열리는 '클럽 몬스터'전은 다양한 장르의 대중 음악이 현대 미술과 어떻게 조우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전시를 좀 더 흥미롭게 관람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도슨트가 진행하는 설명(오전 10시~오후 5시 매시 정각)을 들으며 관람하면 훌륭한 길라잡이와 함께 여행하는 셈이다. 자유로운 관람을 원한다면 전

시장에 비치된 35페이지 분량의 두툼한 타블로이드 형식 설명서를 들고 '보물찾기'하듯, 각각의 방으로 들어서면 된다. 무엇보다 전시장에 '오래 머물며' 관람하는 게 필요하다. 음악을 듣고, 영상 작품들을 관람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전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획됐다. 대중 음악사에 이름을 남긴 108곡의 대중음악을 선정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24명의 현대미술작가와 공유했다.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 이글스의 'Hotel California',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현대수의 '물줄 주조' 등이 현대미술의 옷을 입고 관객들을 만나는 중이다.

작가들은 사회의 소수자, 기득권이 없

는 자들, 여성, 난민, 테러와 분쟁의 트라우마에 고통 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 부른 노래를 모티브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노래가 주는 치유와 공감의 감정을 현대미술이라는 또 하나의 틀로 바라본 전시장에 머물며 노래를 듣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절로 '위로'를 받는다.

전시는 방 번호와 관계 없이 편한대로 둘러보면 된다. 첫번째 관람한 작품은 11번 방, 신미경 작가의 '벽, 2016'. 들어서자 향기로운 냄새가 코에 감긴다. 비누로 만든 '벽'엔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The Wall' 뮤직 비디오가 흐르고 귀에 감기는 건 그들의 음악이다. 시각, 청각, 후각을 모두 아우르는 전시다. 비누벽엔 누구나 사연을 적을 수 있다. 가지고 있던 볼펜으

로 몇자 적고 방을 나온다.

장민승의 '사계'는 한참을 들여다 보게 되는 작품이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가 흐르는 가운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싱 앞에 앉아 있는 네명의 미싱사가 오색실로 노랫말을 '기계수'로 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터키 작가 하릴 알틴데레의 '사이렌'도 흥미롭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를 트랜스 젠더 언어를 등장시켜 풀려낸 영상 작품 속엔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가 흐른다.

오노 요코의 'Ceiling Painting'은 작가가 남편 존 레논을 만나게 된 작품으로 유명하다. 1966년 제작된 후 올해 다시 만들어진 작품은 기존의 전시 때와는 달리 관

객의 '체험'이 가능하다.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는 흰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에 매달린 캔버스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어떤 글씨를 만날 수 있다.

누군가의 취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김보경 작가의 작품에선 '호텔 캘리포니아'가 흐르고 신기운 작가의 'Approach the Truth' 작품에선 레너드 코언이 부르는 '할렐루야'를 긴 소파에 누워 감상할 수 있다. 그밖에 한 남자가 물 속을 끊임 없이 걸어가는 영상을 만날 수 있는 사이몬 페리스폴의 'Going Nowher 2'에서는 데이비드 보위의 'Dead Man Walking'과 폴리스의 음악 등 'Walk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들을 수 있다.

3층에 가면 모든 게 아얀 카페가 기다리

고 있다. 유현미 작가의 '종이 카페'는 작가가 세계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화합을 기원하며 제작한 작품으로 미국의 록 밴드 펄럼의 리드 싱어와 파키스탄 대중음악가 누슬람 파테 알리 칸이 함께 부른 'The Face of Love'를 모티브로 제작했다. 관객들 누구나 작품 속 카페에 앉아 쉬어갈 수 있다.

모든 룸을 다 둘러본 후 다시 1층의 12번 방으로 돌아와 알란 파커 감독이 제작한 'the Wall'(1982년 작)을 본다. 핑크 플로이드의 팬이 아니더라도 빈백에 기대 거는 누워서 관람한 영화는 흥미롭다. 월요일 휴관.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무료 관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청녹빛의 눈부신 열정...이승희 작가 개인전

LH휴광갤러리 28일까지

일상 속 즐거움을 작품에 담고 있는 이승희 작가가 28일까지 휴광갤러리(LH한국토지주택공사 1층)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스케치와 유화, 누드 크로키 등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풍경은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반추상 구성을 보여준다.

작품 '연주'에는 첼로 연주자와 춤을 추는 사람이 등장한다. 사람과 사물을 자유롭게 배치하며 동적인 느낌을 더했다.

작가는 스페인, 프랑스, 발칸반도 등을 여행하며 본 풍경과 경험을 작품에 녹여내었다. 푸른색과 녹색을 자주 사용하며 시원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작품 '열정'은 관능적인 무용수가 주인공이다.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휘날리며 플라멩코를 추는 여인에게서는 짙은 열정이 느껴진다.

그밖에 간결한 선으로 인체 아름다움을 전하는 누드 크로키 등을 전시한다.

이씨는 한국미술, 광주화우회, 크로키 토만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The 2016 올해의 작가 100인 초대전', 프랑스 파리 스페셜 K-ART전, 히로시마 평화 미술전, 한국현대연구소 초대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3100. /김용희기자 kimyh@



'연주'

# '세화전-복끼요!!!'

## 행촌미술관 새해맞이 특별기획전

28일까지...작가 28명 참여

▶박용자 작

해남에서 복을 부르는 닭 울음소리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행촌미술관이 28일까지 새해맞이 특별기획전 '2017 세화전-복끼요!!!'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고창훈·김익·김우성·김은숙·김선두·이인성·조병연·조성훈·조종성·허진 등 작가 28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행촌문화재단과 해남 종합병원을 설립한 고(故)김재현 박사가 지역 미술인들과 교류하며 선물받았던 세화를 함께 선보여 의미를 더한다. 1993년 계유년에 보내온 세화작품 등 12·24·36년 전 세화를 비롯해 임하도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등이 출품한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에서는 작가 성향, 작업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한 닭을 볼 수 있다.

박용자 작가가 그린 닭은 붉은 깃과 부른 노란 눈으로 인해 범접하기 힘든 인상이다. 이에 비해 안운모 작가의 닭은 좀 더 친근한 모습이다. 흰구름이 떠있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볼록한 배, 오색 꼬리깃을 가진 귀여운 닭을 등장시켰다.

박용자 작가는 하얀 목련나무 밑에서 노니는 닭 가족을, 김주호 작가는 '복끼요'를

함께 외치는 판화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행촌미술관은 세화전을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한 작업을 기획했다. 세화전을 시작으로 5월 '몽연(夢緣)-녹우당에서 운림산방까지' 화첩전, 7월 2017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 등을 비롯해 오는 9월에는 새 전시장을 개관할 계획이다. 문의 061-536-411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관람객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